



# 벤처 자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협회는 지난 5월 28일 오전 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재형 정책의장,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벤처기업인으로는 장흥순 회장을 비롯해 변대규, 김형순, 이금룡, 안철수, 이재웅, 박성찬 등 협회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또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과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고시연 회장, 벤처캐피탈협회 고정석 부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협회 장흥순 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

장흥순(협회 회장) - 벤처산업은 이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인프라와 시스템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챔피언의 육성과 차세대 리더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다. 기술중심의 연구개발로 시작한 벤처기업들이 이제는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성장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시장 석권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챔피언 기업양성과 이를 위해 기업이 역량을 갖춘 차세대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코스닥의 정체성 확보와 M&A활성화가 필요하다. 통합거래 소시장에서도 기술중심의 역동적인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자율과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건전한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건전한 M&A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어 대출과 투자가 선순환되는 기술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하고,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고시연(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회장)** - 한국 벤처기업은 어지간히 성장하면 하나둘씩 쓰러진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최저입찰제라는 잘못된 거래관행이다. KT 등의 거대 서비스사는 장비를 살 때 가격을 미리 결정해 놓는다고도 한다. 이들은 또 불가능한 장비 납품기간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다보니 벤처는 악성재고에 시달리게 된다. 최저입찰 관행은 정부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많은 소기업과 벤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수익을 내야 할 필요가 있나? 벤처는 합리적 시스템이 정착되면 자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번 돈으로 해외 수출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정석(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 규모가 종전 1조4000억원에서 2003년에는 4500억원 규모로 줄었다. 벤처캐피탈이라는 벤처생태계내 주요 요소가 무너지고 있다. 중요 인프라를 잘 구축해줬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다보니 인프라가 깨지고 있다. 정부 참여 지분이 없으면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좀더 필요하다.

**변대규(휴맥스 대표)** - 최저입찰 관행을 지적하겠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키우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일본과 한국의 거래관행을 예로들면 이 둘은 매우 다르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벤처기업은 기업간전자상거래(B2B)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인프라가 없다. 휴맥스는 다짜고짜 외국에서 시작했다. B2B로 돈벌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B2B가 불가능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금력을 키우기 힘들다. 현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은 삼성, LG 정도다. 중간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1조~2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이 없어 한국에 들어오는 거래를 대부분 대만에 빼앗기기도 한다. 건강하지 못한 구조다.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1조~2조원 규모의 기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김형순(로커스 대표)** -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겠다. 여러 곳에서 혁신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혁신클러스터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제다.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 정도만 성공했다. 우리 정도의 자금력으로 전국 각지에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 대덕연구단지 등의 성공 모델을 만든 다음 다른 곳에서 이를 따라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영남(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 벤처활성화 2라운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벤처는 지금에서야 1라운드를 맞이했다. 지금까지는 남성들의 기업을 서포트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여성벤처기업은 아직 남성기업과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전용펀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디지털계측기 개발업체 이지디지털 대표로서 제조업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다. 현재 제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재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보기술(IT)기반의 제조업체마저 이런 식이면 국내에서 살아남을 제조업체가 얼마나 될까 우려된다.

**안철수(안철수연구소 대표)** - 지식정보산업 역시 아주 어렵다. 지식정보산업의 강국으로 가자고 하는데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식정보 가치에 대해 공무원들을 포함해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점이 첫번째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SW)업체는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있다. 정부가 이를 거든다. SW를 구매할 때 단품으로 사지 않고 대형 SI업체에 넘긴다. 그러면 SI업체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고 결국 모든 손해는 국내 SW사가 떠안게 된다. 오히려 일선 공무원이 나서서 지식정보산업을 축소시키는 셈이다. 현재 SW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국 업체의 비중만 늘어나고 있다.

한 가지 정책제언을 하자면 정부가 SW를 구매할 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SW제품만은 분리 조달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재웅(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추진하려 애쓰는데, 오히려 국내 기업은 역차별 받고 있다. 외국계 센터의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적으로 키워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시장 경제가 좋다면 외국 기업은 저절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끌어오려 하니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금룡(이니시스 대표)** -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하청기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 국내 행정관청이 발주할 때는 대기업 몇 군데에 발주하곤 한다. 이러면 벤처가 차지하는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아마 우리나라 SI기업은 행정자치, 국방 등등 안 해본 품목이 없을 것이다. 벤처가 하청기업쯤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분리정발주시스템을 정착시켜 달라. 정부는 각종 기금으로 벤처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정당한 영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저절로 성장하게 된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오늘 벤처산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벤처기업인들이 안고 있는 고민도 잘 알게 됐다. 당정협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털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주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고대한다.

(출처 : 2004년 5월 29일자 머니투데이 16면 김현지 기자)